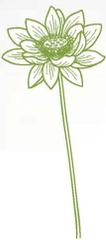


가시 연꽃



‘연꽃 만나고 가는 바람’이 풍문을 흘렸다.

풍문의 진원지를 찾아 궁남지에 갔다. 가시연꽃이 정염을 토하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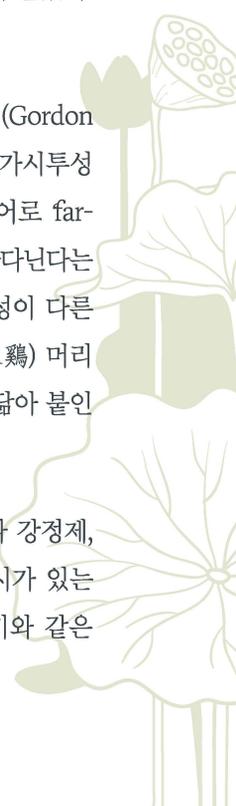
그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가시연꽃 잎 위에선 쇠물닭 식구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하필 가시방석 연꽃잎을 놀이터로 삼다니 조심스러워 보였다.

가시가 있는 잎은 가시연꽃의 옷이며 방패며 문이다. 연꽃은 둥근 방석을 깔고 향연을 베푸는 잔칫집 분위기였다. 어두울 까봐 한두 송이씩 여기저기에 꽃등을 켜 놓고 쇠물닭을 불러 잔치를 하고 있었다. 어미는 병아리에게 먹이를 먹여주었다. 고개를 쳐들고 물 한 모금을 마시는 새끼도 있었다. 어미를 따라가다 새끼들은 미끄럼을 타고 솜바꼭질을 하면서 놀았다. 어미는 장난을 치는 새끼들이 아주 멀리 떨어지지 않게 눈 맞춤을 했다.

가시연꽃의 학명은 *Euryale ferox* Salisb.이다. 종소명 ‘ferox’는 ‘가시가 많다’는 뜻이다. 영명은 ‘고든 에우리알레(Gordon Euryale)’다. 속명인 ‘Euryale’는 그리스 신화의 괴물인 ‘고르곤(Gorgon)’ 중 하나다. 이미지에 걸맞게 잎은 온통 가시투성이고 온전한 잎은 시간이 지나면 한 귀퉁이가 녹아 떨어져나가므로 괴물 같다는 의미일거다. ‘에우리알레’는 영어로 far-roaming’이다. 멀리 배회한다는 뜻이다. 이는 젤라틴에 싸인 씨앗이 물위에 떠서 정처 없이 유령처럼 멀리 떠돌아다닌다는 것이다. 본초명은 검(莢)이다. 이지러진(欠) 풀(艹)로서 잎이 쭈그러졌다는 뜻이다. 또 가시연꽃은 모양이나 품성이 다른 연들과 달라, ‘거짓(pseudo)’ 연이라 하여 개연이라 부른다. 수계두(水鷄頭)란 이름도 있다. 꽃 봉우리가 물닭(水鷄) 머리(頭)모양이고 개화하면 반쯤 열리는 꽃받침 위로 삐죽 내미는 자줏빛 꽃잎들이 마치 쇠물닭 머리의 붉은 벼슬을 닮아 붙인 이름일 것이다. 이렇듯 많은 이름을 가진 가시연꽃은 가시가 많지만 꽤 쓸모가 있었던 모양이다.

한방에서는 가시연꽃의 뿌리를 검인근(莢仁根), 잎을 검인엽(莢仁葉), 열매를 검실(莢實)이라고 한다. 강장제나 강정제, 관절통이나 배뇨통 등 주로 비뇨기와 근육계통의 통증을 다스리는데 널리 이용한다. 가시연꽃뿐만 아니라 가시가 있는 식물은 많다. 가시오갈피, 두릅나무, 업나무, 탕자나무, 유자나무, 해당화, 꾸지뽕나무, 초피나무와 복분자딸기와 같은



산딸기 등이 있다. 가시 있는 식물은 먹어도 된다. 산중 생활을 하거나 산에서 길을 헤매다 먹을 게 없을 때 가시가 있는 나무를 만나면 껍죽 절을 하고 그 식물의 열매나 잎을 따서 먹거나 줄기를 달여서 식용이나 약용으로 이용해도 된다. 가시가 바짓가랑이를 잡고 손가락을 찌른다고 고깝게만 볼 일이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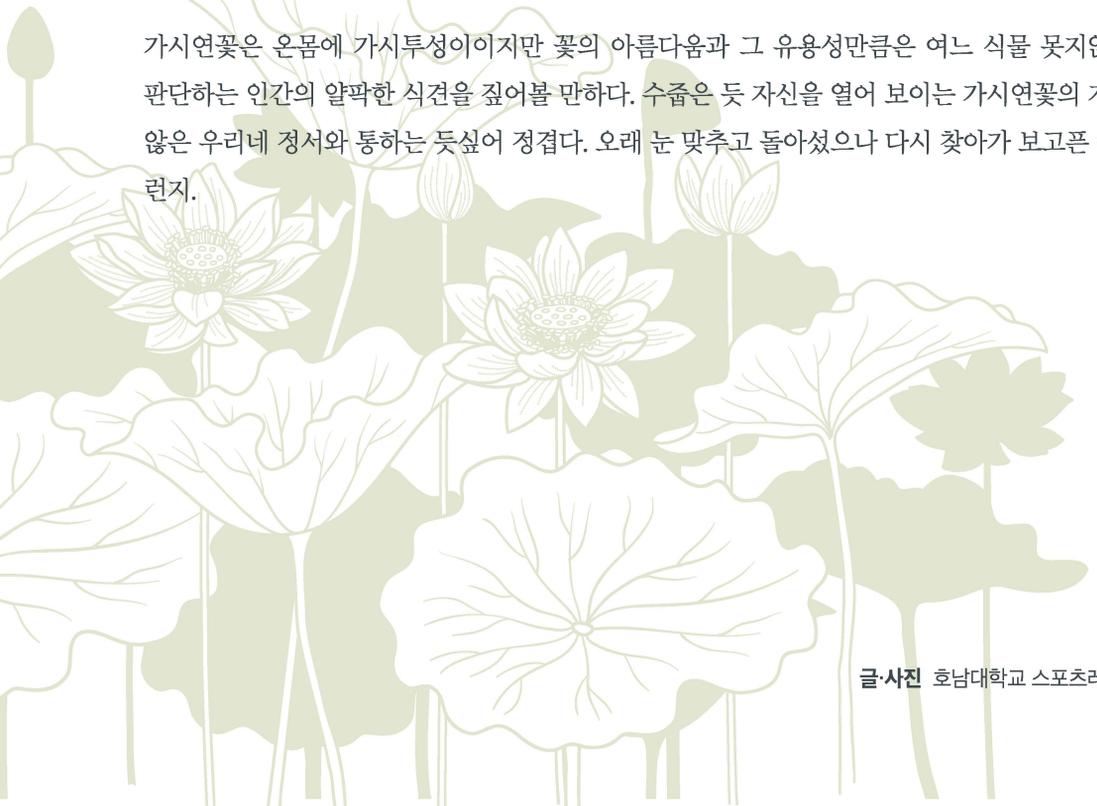
가시연꽃은 둥근 방석 같은 잎들을 연못에 띄우고 산다. 처음부터 큰 잎을 올리는 건 아니다. 가시연꽃은 1년생 초본이므로 5월에 씨앗이 발아한다. 첫 번째 잎은 수중 잎이고 창 모양이다. 두 번째 잎과 세 번째 잎은 직경이 1~2cm인 수중 잎이고 말굽 같은 삼지창모양이다. 네 번째 잎부터 수면 위에 뜨는 방패모양의 부엽이다. 7월에는 직경이 50~200cm로 커지고 잎 전체에 가시가 나온다. 8월에도 돌돌 말린 구겨진 창 같은 잎을 물위에 띄우고 한여름 뜨거운 열기로 한과 부풀리듯 수면 위에 펼쳐놓는다. 둥근 방패 같은 잎은 이지러진 곳마다 바늘땀 같은 가시가 나있다.



가시연꽃은 8-9월에 개화한다. 얼마나 매서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는 꽃이 피는 과정을 보면 안다. 종족 보존을 위해 가시 달린 창으로 자신의 잎을 뚫고 수면 위로 꽃대를 올린다. 누구를 위하여 스스로 성문을 열어 저리도 아리게 세상을 바라보는가. 가시연꽃은 수줍음쟁이 같다. 제 살을 애면서 솟아오른 꽃봉오리의 위용과는 달리 수줍어하는 꽃을 피운다. 여느 꽃처럼 꽃받침을 확 뒤로 젖히지 못하고 겨우 반쯤만 여니 꽃잎이 절반만 보인다. 쇠물닭의 붉은 벼슬 같은 자줏빛 꽃은 길손의 발길을 붙잡는 매력이 있다. 그 속에 무엇이 있기에 다 열지 못하고 저리도 아리게 피는가. 고개를 내밀어 볼 수밖에 없는 꽃이요, 가다가 뒤돌아봐도 궁금증을 자아내는 꽃이다.

예전에 많았던 가시연꽃은 어디로 갔는가. 농촌이 기계화되면서 천수답은 경지정리를 하면서 가시연꽃이 살던 둠벙이나 습지는 사라졌다. 물 깊은 저수지나 댐이 생기면서 가시연꽃은 그 터전을 잃어버렸다. 그래서 멸종위기종이 되었다. 다행인 것은 환경부나 산림청에서 가시연꽃을 복원시켰고 뜻있는 애호가들이 연못을 보전하고 있다는 점은 그나마 다행한 일이다.

가시연꽃은 온몸에 가시투성이이지만 꽃의 아름다움과 그 유용성만큼은 여느 식물 못지않다. 선불리 걸만 보고 가치를 판단하는 인간의 알팍한 식견을 짚어볼 만하다. 수줍은 듯 자신을 열어 보이는 가시연꽃의 자태 또한 은근하고 되바라지지 않은 우리네 정서와 통하는 듯싶어 정겹다. 오래 눈 맞추고 돌아섰으나 다시 찾아가 보고픈 여운이 남는 것도 그 때문 아닐런지.



글·사진 호남대학교 스포츠레저학과 임동욱 교수